

##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 -복음으로 여는 열왕기하

왕하2:6-11, 눅4:25-30

정윤돈 목사님

여러분 모두 다 오늘부터 갑절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 드린다. 보통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말하면 두 배, 세 배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기도 한다. 엘리사의 이적과 능력을 보면 엘리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갑절의 의미는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요셉이 장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의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어 두 배의 땅을 얻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장자권이 옮겨졌다는 것이다. 아굽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하나님이 주신 뜻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그것을 본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더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갑절이라는 말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도 갑절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한다.

저는 과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기에, '에이 30배 기도는 안 해. 나는 100배의 기도만 할 거야.' 교만하게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2배만 해도 큰 은혜이다. 여러분의 월급이 당장 2배가 되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렇게 생각해보니 30배가 엄청 나더라. 기적이 더라. 여러분들이 2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란다. 우리교회도 2배만 부흥되어도 다 해결된다. 2배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는가. 출산율이 2배가 되면 다 해결된다. 들어올 학생이 없으니 대학도 문을 다 닫는다. 국민 소득도 2배만 되면 다 해결된다. 어떤 경제 단체에서는 남북 땅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면 2050년에 세계 1위 국가가 된다고 예측했다. 옆에 강대국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어쨌든 일본, 중국, 러시아도 그렇다. 우리가 강대국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일본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 말을 했다고 한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 하나가 된다고 한다.' 한국은 하나가 안 되고 바보 같다고 한다.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싸울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유가 없다. '왜 저러지?' 한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이다. 상처도 갈등도 많다. 그러나 2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 북한이 물론 독재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한다. 훌륭하고 독재 안 한다는 말이 아니다. 명절에 가서 형제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문제 좀 만듭지 마.' 하면 싸움 일어난다. 문제일수록 서로 다독거리면서 용기를 주면서 같이 가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더 기도해주시고 흑미를 꾸고, 지혜롭게 해야지 저주하면 되겠는가. 성경을 보라. 이방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살렸다. 요셉을 보라.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총리하면서 그 나라를 살려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왔지 않은가. 여러분의 수준이 다르기를 바란다. 복음적인 수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두 배의 축복이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데 두 배의 축복을 받고 1/2로 줄여야 하는 응답이 있다. 딱 한가지이다. 몸무게이다. (웃음) 여러분의 살을 빼는데 5kg를 빼는데, 두 배가 빠지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밥 먹을 때도 한 그릇만 먹어도 찬다. 두 배의 응답은 그런 것이다. 꼭 차는 것이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갑절의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어떤 친구는 두 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떤 친구는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수학과목에서 14점을 받았다고 한다. 주관식이냐고 물었더니 사지선다형이라고 했다. 그냥 찍어도 25점은 되는데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는 두 배 가지고는 안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란다.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한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 통치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다. 그런데 아합 왕이 사망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승천시켜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시적이 바로 왕하1장이다. 아합 왕이 죽는 장면부터 열왕기하가 시작된다. 원래는 사무엘하, 열왕기하가 하나였는데 너무 기니까 네 편으로 나눈 것이다. 70역으로 보면 왕국기1, 2, 3, 4로 나뉘어져서 열왕기하4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역사책이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똑같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교회, 빌립보지역 다 나오지 않는가? 즉, 사무엘부터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그 내용이 있고, 나머지 12가지 선지서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놓고 뒷부분의 선지서를 끼워 넣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익힐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왕국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왕기하는 아합 왕의 죽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

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가더니'. 구약시대에 죽지 않은 사람, 승천한 두 사람이 있는데 예녹과 엘리야이다. 대단한 인물인 것이다. 사망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엘리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다. 분명히 감당해야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니.' 하니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영원히 살아계실 줄 알았다. 그런데 저 분들이 안 계시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다.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마음속으로 항상 부모님이 없을 때를 생각했다. 언젠가는 가실 테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언젠가는 그 시간표가 온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누님과 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엄청 우셨다. 나는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이러한 지혜를 얻고, 이러한 의논도 하시기를 축원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현장을 돌게 하셨다. 특별히 한 것도 아니다. 길갈에서 벨로, 왕하2:2에 쫓아오니까 따라오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여기고로 요단으로 가게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엘리야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내셨는가? 제자를 거르기 위함이었다.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도 훈련 받을 때 보면 얼마나 자리도 불편하고, 힘들고, 불친절한가. 그런데도 끝까지 20년 따라오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 만 명이 모여도 질서 정연한다. 렘넌트가 그 말을 한다.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내가 누구고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왔다고 소리 질렀다고 한다. 그래서 스텝하는 렘넌트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그 목사님은 훈련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랬다고. 그 체질이 그렇게 변하기 힘든 것이다. 힘든 과정이 있다. 끝까지 쫓아가기를 바란다. 가치를 알아야 한다. 영이 밝아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면, 언약의 여정을 알면 작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다. 당연한 것이다. 국회의원, 연예인이다. 인기가 높은 만큼, 성공한 만큼 욕먹는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당연히 그 부분도 생각해야지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다. 광야의 길, 노예의 길, 포로의 길, 갈등의 길, 많은 길이 있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렘넌트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었다. 이 언약의 여정, 축복의 여정, 갑절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영력이 있기를 축원한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다. 왕하2:7에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서 있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이 오십 명은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중직자 오바댜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은 것이다.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섭리를 볼 비전이 없었다. 나중에 올라가니까 '어, 올라가네.' 한다. 목회자들이 그런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한다. 구경꾼만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은 양보하지 말기 바란다. 엘리야는 열두 거룻소가 끄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부자였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자, 다 버리고 떠났다.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 드린다. 이 눈이 없으면 나중에 다 틀린다. 영안이 열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미리 선택한 것마다 잘하게 된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믿으셔야 한다. 그 선약을 하려면 나를 버려야 한다. 내 생각이 없어야 한다. 사도바울도 대단한 선지자였다. 자기 계획으로는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기기에 성령인도 받았다. 갈 2:2에 나를 버리고 성령인도 받을 만큼 성령충만했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바꿀 줄 모른다. 온유라는 말이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했다. 말이 있는데 훈련이 잘 되어서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조련에 따라 잘 움직이는 명마가 되기를, 제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니까 '너는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묻는다. 그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한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면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1.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원하였을까.

(1) 미자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왕하4:1에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가 나온다. 선지자의 제자인데, 과부가 남편이 죽었는데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녀 두 명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남편이 미자립 교회를 운영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빛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 때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의 미자립을, 교회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때 엘리사가 자녀들에게, 가서 그릇을 준비해오라고 한 것이다. 준비해온 그릇에 기름이 꽉 찼다. 그것을 팔아서 빛을 값었다. 미자립을 해결한 것이다. 미자립 교회와 성장하지 못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면 스트리밍으로 잘 들린다.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한데도 계속 싸우시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분이 돌아가셨다. 너무나도 훌륭한데도 인수도 잘 하시고 착하게 생겼다. 그 목회를 하시다가 갑절의 영감을 누리지 못하니 돌아가셨다. 너무 안타깝다. 회개하게 되었다. '건방지겠지만 목사님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했구나.'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다. 여러분이 성령충만 하셔서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와 그 후손까지 살리는 축복 받으시길 바란다. 매형이 집사 아들이다. 은혜를 받고, 친한 친구 5명 중 절반이 목사아들이고 나머지는 장로님 자녀인데, 어디 가서 모아놓고 설교는 자신이 한다고 한다. 그 중에 한 분이 결단을 하고 영락교회의 목사님 기사가 되었다. 몇 년 후에 엄청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땅 보러 왔다 갔다 하다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들은 것이다. 땅을 샀는데, 몇 십 배로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집사가 목사와 장로를 다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영력, 은혜가 필요하다.

(2) 가정과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왕하4장 후반절을 보면, 수냄여인이라고 나온다.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왕하4:8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 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미션홈, 지교회 응답을 받은 것이다. 루디아가 받은 응답이다. 남편에게 설득해서 왕하4:10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지교회, 미션홈을 한 것이다. 수냄여인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니까 내가 1년 후에는 자녀를 얻으리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자녀가 죽은 것이다. 수냄여인이 쫓아와서 따지는 것이다. 사망자도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다.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엘리사가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앉으니까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교회의 응답. 미션홈을 할 사람을 찾아내서 그들의 집을 미션홈으로 만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갑절의 응답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한다.

(3) 아람과 엘리트 나이만 장군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력이 필요하다.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다. 그런데 아람의 장군 나이만이 있었는데 문둥병자였다.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가 '우리 동네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나올 수 있는데' 한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청한 것이다.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 말에 순종하여 나온 것이다. 엘리트들도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굉장하다. 한 아이가 답을 준 것이다. 한 램넛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라를 계속 괴롭혔던 나라 아람이었는데, 적국도 살린 것이다. 왕하5:1에 보면 아람나라, 적국의 최고 대장인데 건강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매국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 적도 살려서 복음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다. 차원이 달라야 한다.

(4) 왕들을 살리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20명의 왕들과 남왕국 11명의 의로운 왕들도 나중에 가서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 할 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이다.

(5) 도단성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엘리사가 머물렀던 곳이 도단성이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모여 있는데, 옆에 있는 사환, 청년이 말한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봐라 불 말과 불 병거, 그 사람들보다 많은 군대가 뒤에 있다. 어디 있는대요. 안 보이는 것이다. 기도를 해서 왕하6:17에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여러분이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가. 눈이 열려서 세상의 타락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RUTC 운동이다. 신학생을 키우는 RTS이다. 신학생들과 미래의 자료를 남길 RU이다. 난민 탈북자, 문화, 정치, 경제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도단성 운동인줄을 믿기를 바란다.

## 2. 성경에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응답을 받은 제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다.

(1)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인물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모세가 사망하고, 말을 안 듣고 불만불평이 많은 백성을 이끌려고 하

니 여호수아는 두려운 것이다. 수1장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서 모세보다 훌륭한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 드린다.

(2)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레미야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고생을 했다.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도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것이다. '조상들처럼 불신앙하지 말자. 우리는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제사의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한다.

(3) 신약시대에 갑절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디모데라고 할 수 있다. 갑절의 성령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언약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이 유언서 같은 책을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냈다. 교회를 살려야지 전체를 살릴 수 있지 않은가. 디모데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히려 사도바울보다 갑절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3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는가. 오늘도 열 네 명이 합숙, 팀합숙을 가게 된다. 램넛들이 거의 90%이다. 가서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붙잡고 갑절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한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갑절의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이다. 갑절의 축복은 두 배라는 뜻이 아니다. 두 배만 받아도 해결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갑절의 축복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하나님이 은혜주시면 쉽게 된다. 목사님, 장로님 때문이 아니다. 신대원이 있을 때 교회를 갔는데 4천 명 정도 되었다. 한 장로님이 절반이상을 전도했다. 매주 2,3명을 데리고 오신다. 한 분만 응답받으면 된다. 여러분, 인본주의만 안 써도 된다.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제일교회라고 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가장 잘리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는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 후대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서 이 갑절의 축복이란, 성령충만함을 의미한다. 갑절의 축복이란,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갑절의 축복이란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것이다. 갑절만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면 나이만처럼 불가능한 것도 치유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갑절의 축복임을 믿기를 바란다.

## 결론.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가?

(1)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어제도 다락방사역자를 했는데 청년에게 '공허함을 알아?' 라고 했는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공허했다고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보고, 여자 친구도 사귀어 보기도 했는데 너무 공허했다고 한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약간의 은혜를 받으면 5기초를 통해 다 살려내면 된다.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천만 제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꿈, 900현장, 3000제자를 이루기 위해 갑절의 영감과 축복을 받기를 축원 드린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의 그림과 기도제목이 이제 실상이 되어야 한다. 생생하게.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 잘 전하는 복지국가. GDP제일 높은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4)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약하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각하지 않는 것.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숙제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과 갑절의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후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